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THE KOREAN-AMERICAN CLERGY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제48회기



제48회기 뉴욕목사회는 6일 정오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식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제48회기 뉴욕목사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수석협동총무 박시훈 목사, 총무 마바울 목사, 회장 이준성 목사, 서기 이기응 목사, 회계 박드보라 목사, 수석협동총무 김희숙 목사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 만들겠다”

제48회기 뉴욕목사회 회장단 인선 · 월별 행사 일정 발표

제48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6일 정오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식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제48회기 뉴욕목사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발표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가 발표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김진화 목사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이기응 목사 △회계 박드보라 목사 △수석협동총무 박시훈 목사, 김희숙 목사 △기획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이 자리에서 회장 이준성 목사는 제48회기 뉴욕목사회의 표어를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로 정했다면서, “8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 이를 위하여 법규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성 목사는 “지난 번 총회 부회장 선거에서 김진화 목사와 경선을 벌였던 이재덕 목사를 기획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준성 회장은 “사실 부회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부회장에게 특별히 맡길 일이 있으면 맡기겠지만, 제48회기 뉴욕목사회의 모든 행사는 기획위원회에서 협조를 구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위원장이 총무의 지휘를 받게 될런지, 아니면 총무의 지시를 받지 않는 회장의 직할 기구로 활동하게 될런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목사회 2020년 월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하늘가족재단(이사장 하미광)과 함께 묘지 100기를 구입한다. 구입 대금의 50%는 목사회가, 50%는 하늘가족재단과 중앙장의사(대표 하봉호)가 부담한다.

다.

△3월- 금식 성회

△5월- 미동부 4개주 체육 대회, 쿠바 선교지 탐사

△6월- 구속사 세미나(강사 : 신현 목사)

△7월- 말씀 세미나(강사 유석영 목사)

△8월-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

△9월- 야유회, 구약 1독 학교 집중 3일 세미나

△11월- 정기 총회, 창조 과학 탐사(그랜드 캐년 중심)

이준성 목사는 당초 12월 12일(목)로 예정했던 제48회기 시무 감사 예배 및 회장, 부회장 이, 취입식을 연기(날짜 미정)한다고 발표했다. 전 회장 박태규 목사와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 · 사진 제공=복음뉴스)